

## 2-2 선지의 단순화. 보기의 주제성을 통한 1번선지와 2번선지

(가)

꿈을 아느냐 네게 물으면,  
플라타너스,  
너의 머리는 어느덧 파아란 하늘에 젖어 있다.

너는 사모할 줄을 모르나,  
플라타너스,  
너는 네게 있는 것으로 그들을 늘인다.

먼 길에 올 제,  
① 홀로 되어 외로울 제,  
플라타너스,  
너는 그 길을 나와 같이 걸었다.

이제 너의 뿌리 깊이  
나의 영혼을 붙여넣고 가도 좋으련만,  
플라타너스,  
나는 너와 함께 신이 아니다!

수고론 우리의 길이 다하는 어느 날,  
플라타너스,  
너를 맞아 줄 검은 흙이 먼 곳에 따로이 있느냐?  
나는 오직 너를 지켜 네 이웃이 되고 싶을 뿐,  
그곳은 아름다운 별과 나의 사랑하는 창이 열린 길이다.

- 김현승, 『플라타너스』 -

22.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가)와 (나)는 특정한 공간에서 사물과 교감하는 화자의 내면을 보여 준다. (가)의 화자는 삶의 여정이자 구도적 공간인 '길'에서 이상 세계인 '하늘'을 지향하는 소망을 드러낸다. (나)의 화자는 달밤의 조화로운 풍경을 포착하는 심미적 공간인 '마당'에서 사물의 아름다움에 대한 충만한 정서를 드러낸다.

- ① (가)의 화자는 '플라타너스'와 '같이' 걷는 모습에서, (나)의 화자는 '흰 돌'의 '유달리' 고운 '이마'를 알아채는 모습에서 사물과의 교감을 보여 주는군.
- ② (가)의 화자는 '어느 날'에 이르는 과정을 통해 삶의 여정을 드러내고, (나)의 화자는 '한밤'에 '밀물'처럼 밀려온 달빛을 통해 조화로운 풍경을 포착하는군.
- ③ (가)의 '창'은 화자와 '하늘'을 잇는 매개체로서 이상 세계의 완전함을, (나)의 '영창'은 화자의 내면과 외부 세계를 잇는 매개체로서 화자의 만족감을 상징하는군.
- ④ (가)는 반짝이는 '별'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화자가 지향하는 세계의 아름다움을, (나)는 차고 넘치는 '호수'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화자가 느끼는 '마당'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군.
- ⑤ (가)의 화자는 '플라타너스'와 '이웃'이 되어 구도의 '길'을 함께하고자 하는 소망을, (나)의 화자는 오동 꽃이 '못 건디게 향스럽다'고 표현하여 자연에 대한 감흥을 드러내는군.

## 2-2 선지의 단순화. 보기의 주제성을 통한 1번선지와 2번선지

### 보기문제는 누군가에게겐 너무나도 쉽다.

문학에서 보기문제는 대부분이 3점문제. 즉 킬러문제로 이루어져 있다. 사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오히려 보기문제가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 중에 난이도가 가장 낮다. 보기문제란 출제자가 작품을 보고 나는 이렇게 읽었으니 너도 이렇게 읽어봐~라는 하나의 기준을 제시하고 그 틀에 맞춰 문학에 나온 여러가지 표현들을 그 기준에 맞춰 사고해보라는 것이 핵심이다. 우리는 여기서 앞서 배운 중요한 특징, 주관의 객관화를 이용해야 한다.

시에서 나온 표현들은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보기라는 하나의 주제성 아래에 놓이게 되면 시에 나오는 모든 문장과 단어 표현들은 반드시 그 주제성 하나를 표현하기 위해 존재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특정 표현에서 사람마다의 해석이 다르기에 논쟁의 여지가 생길 수 있다.

이를 이용하면 선지의 주관이 보기의 주제성과 100%일치했을 때 우린 지문으로 굳이 돌아가지 않아도 당연히 이 표현은 이 주제성을 표현해야만 해! 라고 선지에서 바로 판단을 할 수 있을테고 선지의 주관이 보기의 주제성과 정반대라면 지문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이는 100%틀린 선지일거다. 혹은 선지의 주관이 보기의 주제성과 비슷하나 엄밀하게 맞아 떨어지지 않는다면 우린 지문으로 가서 확인을 해봐야 할거다. 이를 토대로 선지를 구분해보자. 이걸 그대로 따라만 하면 된다.

1번선지는 지문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선지만 보고 바로 정당화가 되는 선지다. 우린 평가원이 1번선지의 형태로 봤을 때 반드시 지문으로 돌아가지 않고 선지만 보고 판단해야 한다. 이런 선지를 지문으로 돌아가서 판단하는 순간 주관이 개입되고 판단이 오래 걸린다.

2번선지는 선지만으로 판단이 불가능하고 지문에 돌아가서 확인을 해봐야 하는 선지다. 지문으로 돌아갔을 때 글 단위 문장 단위의 판단이 아닌 사실의 주변부에 가서 적절한 선지면 주관과 바뀌질 수 있는, 일치하는 단어가 존재하며 적절하지 않은 선지일땐 주관과 반대되는 단어가 있거나 아예 그 단어가 없으면 된다.

**1번선지** 선지O 지문X 보기 주제성에 의한 판단으로 간단화

**2번선지** 선지O 지문O 체계화된 판단 방식으로 단어 위주의 판단



사실의 주변부에 주관과 반대되는 단어존재



사실의 주변부에 주관과 반대되는 단어존재

사실의 주변부에 주관을 정당화시키는 단어없음

## 2-2 선지의 단순화. 보기의 주제성을 통한 1번선지와 2번선지

①(가)의 화자는 '플라타너스'와 '같이' 걷는 모습에서, (나)의 화자는 '흰 돌'의 '유달리' 고운 '이마'를 알아채는 모습에서 **사물과의 교감**을 보여 주는군. **정당화**  
주제성과 일치

보기의 주제성이 사물과 교감하는 화자의 내면이니 시의 모든 대상과 단어들은 이 주제성을 표현해야 한다. 선지의 사실부분에 이를 나타내 줄 단어가 있으면 반드시 그 단어는 이 주제를 표현해야만 한다. 그게 객관성의 확보니까. "같이 걷는다"라는 표현은 주제성을 떼 놓고 봤을 땐 여러가지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다. 자연과의 조화도 될 수 있고 친구와의 우정일 수도 있고 수십가지 수백가지의 각기 다른 상상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보기의 주제성이란 맥락 아래 들어오면 반드시 이 표현은 사물과 교감이란 내용을 담고 있어야만 한다. 그러니 이 선지는 선지만 보고 바로 지을 수 있는 1번선지다.

②(가)의 화자는 '어느 날'에 이르는 과정을 통해 **삶의 여정**을 드러내고, (나)의 화자는 '한밤'에 '밀물'처럼 밀려온 달빛을 통해 조화로운 풍경을 포착하는군. **정당화** 주제성과 일치

2번도 마찬가지다. 삶의 여정이란 주관은 주제성과 치한다. 그러므로 앞에 사실부분에 이를 정당화시켜줄 단어만 있으면 100%맞는 선지다. "어느 날"에 이르는 여정이란 말은 맥락을 떼어 놓고 보면 여러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으나 주제성 아래에선 반드시 삶의 여정을 드러내야만 한다

### 2번 선지에 대한 확립

보기에선 이상 세계의 하늘을 지향하는 글이다. 그런데 선지에선 이상세계의 "완전함"에 대한 글이다. 이상세계의 지향이란 글을 쓸 때 이상세계의 완전함에 대해 지향을 할 수도 있고 이상세계의 어떤 다른 점을 지향할 수도 있다. 즉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서브 주제다. 그러니 사실의 주변으로 가서 확인해야 한다. 이렇게 질문하는 학생이 있다. 이상세계가 곧 완전함이 아닌가요? 그건 너의 주관이고 이상세계의 완전함이란 워딩이 없으니 평가원은 필히 가서 확인을 시켜보도록 유도한다.

③ (가)의 '창'은 화자와 '하늘'을 잇는 매개체로서 이상 세계의 완전함을, (나)의 '영창'은 화자의 내면과 외부 세계를 잇는 매개체로서 화자의 만족감을 상징하는군.

너를 맞아 줄 검은 흙이 먼 곳에 따로 이 있느냐?  
나는 오직 너를 지켜 네 이웃이 되고 싶을 뿐/  
그곳은 아름다운 별과 나의 사랑하는 창이 열린 길이다.

### 실전에서

주변이라고 함은 마지막 너를 맞아 줄~부터 단어위로 보면 된다.

너를/맞아줄/ 검은 흙/ 먼 곳 /따로 이 있느냐?/  
여기에 완전함이라고 바꿔 쓸 수 있는 단어 없다.  
절대 문장 통으로 보면서 이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된다.

나는/오직/너를 지켜/ 네 이웃이/되고 싶을 뿐/ 여기도 없다. 그곳은/아름다운/별과/나의 사랑하는 창/열린 길

여기도 완전함에 대해 바꿔 쓸 수 있는 단어 없다.  
그러니 주변에 가 봤더니 선지의 주관이 없다.

EBS 정답해설 : (가)에서 '창'은 <보기>에서 언급한 화자가 지향하는 이상 세계와 관련된다고 볼 수 있으나, '창' 자체가 이상 세계의 완전함을 상징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 EBS해설이 막막한 이유

EBS해설지나 "그윽그윽"을 강조하시는 분들은 이 문장을 이렇게 표현한 거라고 볼 수 없다고 이야기한다. 수험생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한가? 나는 이 문장을 이렇게 생각했는데 왜 저렇게 생각하는 거야? 도저히 몇 번 다시 읽어봐도 안되는데 그럼 배경지식이 있어야하나 시를 미리 공부해야 하나, 이런 사고로 빠지게 된다. 그럼 더 최악으로 빠지게 되는거다.

## 2-2 선지의 단순화. 보기의 주제성을 통한 1번선지와 2번선지

### 📍 4번 선지에 대한 확립

(나)는 지향하는 세계의 아름다움이 보기에 나와있으니 선지의 주관과 일치한다. 그러므로 마당은 반드시 아름다움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선지의 사실부분에 호수가 있으니 1번선지로 판단할 수 있다.

(가)는 지향하는 세계의 아름다움이라는 워딩이 보기에 없다. 그러므로 지문에 나올수도 있고 나오지 않을 수도 있는 서브주제다. 그러니 2번선지처럼 판단하자

④(가)는 반짝이는 **별**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화자가 지향하는 세계의 아름다움을, (나)는 차고 넘치는 '호수'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화자가 느끼는 '마당'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군.

선지의 주관과 일치

사실의 주변부

나는 오직 너를 지켜 네 이웃이 되고 싶을 뿐, 그곳은 아름다운 별과 나의 사랑하는 창이 열린 길이다.

(가)의 주변부에 아름다움이란 워딩이 그대로 적혀있다.

정당화

보기주제성

⑥(가)의 화자는 '플라타너스'와 '이웃'이 되어 **구도의 '길'을 함께하고자** 하는 소망을, (나)의 화자는 오동꽃이 '못 건디게 **향스럽다**'고 표현하여 **자연에 대한 감흥을 드러내**는군.

정당화